

『난지도』에 나타난 생태의식과 젠더 윤리*

-욕의 배설(排泄)과 돌봄의 윤리-

송인화**

차례

1. 들어가며
2. 문명/남성의 지배, 인식의 폭력
3. 월경(越境)의 목소리, '욕'의 배설(排泄)
4. '돌봄'의 윤리, 공생적 관계를 향하여
5. 맺으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83년 발표된 정연희의 『난지도』를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분석하되, 특히 젠더 관점에서 그것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태주의적 인식을 해명하고자 한 것으로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초래한 대상화된 사유 방식과 그로 인해 억압된 타자 특히 여성의 목소리가 작품에 어떻게 재현 혹은 표현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난지도』는 자본주의 문명이 만들어낸 인간중심적 폭력성을 쓰레기매립장을 배경으로 고발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로 황폐화되는 자연과, 이윤창출의 목적성에 지배된 대상화된 인간관계를 문제적으로 제시하는데 전면화된 자본 지배를 윤리적 타락을 통해 강조하면서 특히 자본가 노인의 성매매를 통해 억압성을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자연은 물론 여성 억압의

* 이 논문은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원인을 자본주의적 물질주의로 규정하는 것이다.

『난지도』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항적 공존을 비합리적 규범 밖의 언어인 욕설을 통해 모색한다. 욕설이 가지고 있는 가학성, 성적 희열, 성역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적 체계의 합리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층민 여성들의 욕설을 통해 남성들의 허위성을 해학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여성-육체의 불결함과 희생적 의미를 넘어선다. 발가벗고 웃는, 놀이를 통해 여성-육체는 남성들과 동등한, 자율적 육체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남성, 육체/정신, 합리/비합리의 이분법적 경계와 그것의 위계적 억압성을 뛰어 넘는다. 생태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분법적, 위계적 인식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양자 사이에 대항적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은 돌봄의 여성 윤리를 통해 새로운 대안적 관계를 모색한다. 구체적인 경험과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성들을 통해 구체화되는 돌봄을 통해 공존과 화해의 열망을 투사한다. 이들은 전적인 희생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실천한다. 이는 규범과 정의에 기초하여 추상적 원리로 체계화된 남성 윤리와 구분되는 것으로, 작품은 돌봄의 젠더윤리를 통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인식의 폭력을 극복할 진정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생태주의, 이윤의 목적성, 대상화된 인식, 욕설, 돌봄의 윤리.

1. 들어가며

본고는 1983년 발표된 정연희의 『난지도』를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분석하되, 특히 젠더 관점에서 그것을 해명하고자 한다. 난지도를 배경으로 도시 문명의 암흑면을 파헤친 이 작품에 나타난

심층생태학적 인식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초래한 대상화된 사유 방식과 그로 인해 억압된 타자 특히 여성의 목소리가 작품에 어떻게 재현 혹은 표현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고가 특히 심층생태주의에 주목하는 것은 생태위기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생태질서를 파괴한 가장 주요 원인으로 생태주의가 지목하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유일한 특권적 존재 즉, 주체로 자임하며 자연을 자기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조종하고 억압한 것이 생태 질서를 파괴한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 자기중심적 논리로 대상을 체계화하고 전용하는 행위가 폭력적 지배를 낳은 단초라고 보는 것으로, 이는 곧 대상화된 인식이 낳은 타자화의 문제를 폭력의 매커니즘 속에서 심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적 합리주의, 곧 데카르트식의 정신/육체, 인간/자연, 남성/여성, 합리성/비합리성 등의 이분법적 사유와 그것에 기초한 위계적, 추상적 인식을 생태계 파괴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적 상상력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회복이나 자연과 인간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계적 관계에 도사린 폭력성 자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억압성은 물론, 남성과 여성,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의 모순, 곧 지배와 억압, 착취와 폭력의 부당한 관계를 심문하고 나아가 억압된 목소리를 복원하며, 양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존과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태학적 상상력은 논리적 언어의 이면 곧 추상적 체계 아래 눌러있는 자연, 비합리, 감정,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표현하며 양자 사이에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열망 속에서 나타난다.

『난지도』는 환경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쓰레기매립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세태로서의 환경 훼손만을 거론하지 않는다. 과잉 소비에 의한 환경 파괴나 80년대 초반 한국사회의 물질주의적 세태를 현상적으로 고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맹목적 물질주의가 가져온 ‘관계’의 모순,

곧 대상을 바라보고 전유하는 ‘인식’의 문제를 집요하게 묻고 성찰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의 논리에 지배된 인간관계,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과 갈등, 그리고 정감적 공동체의 파괴 등을 분노어린 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배와 억압을 문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난지도』는 기본적으로 생태학적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질주의에 의탁한 대상화된 인식을 생명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인간, 남성, 합리, 정신이 억압한 자연, 여성, 비합리, 육체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이분법적 인식이 가한 지배의 폭력성을 넘어 통합과 화해의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난지도』는 특히 지배의 폭력성을 여성/육체에 깊이 투사하고 있다. 이윤의 목적성이 여성/육체에 가하는 고통을 초점화 하는 것으로 자연은 물론 여성 억압의 근원이 자본과 결탁한 인간/남성중심주의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과 자연을 억압받는 타자로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생태인식과 여성주의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¹⁾.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을 동일한 맥락으로

-
- 1)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이분법적, 위계적 인식을 생태 파괴의 원인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심층심리학과 연계되며, 중립적 인간이 아닌 남성을 억압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접목된다. 그것은 남성중심주의를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여성주의를 생태계 회복의 결정적 통로로 제시한다. 동시에 여성주의는 생태학적 인식을 통하여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생태주의 안에 페미니즘을 위치시킨다. 나아가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타자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권리를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입장을 고수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타자 윤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타자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다원성보다 젠더의 의미와 작용에 더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즉, 작품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을 젠더 프리즘으로 다시 읽는 것으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옥동, 『에코페미니즘과 생태중심주의 세계관』, 『미국학논집』 제29집 1호, 1997, 47-70쪽/김옥동, 『생태 비평과 비평 다원주의』,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225-275쪽/송지현, 『문학비평으로서의 생태여성론(Ecofeminism)』,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2, 97-115쪽/이남호, 김원중, 우찬제, 『환경 문제와 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과 이론학회, 1999, 9-73쪽 참고.

접근하는 것으로 작품은 자연 지배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육체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다. 남성중심주의의 허위성을 여성들의 육체 담론을 통해 조롱, 공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육체는 남성/정신과 동등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의 위계적 경계를 넘어선다.

사실 지배와 억압, 그 폭력성에 대한 인식은 정연희 소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심적 테마라 할 수 있다. 등단작인 『과류상』에서부터 과제하는 수녀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선의를 좌절시키는 절대자인 신의 지배에 도전하였고, 평판작인 『목마른 나무들』에서도 지식인 여성-청년의 방황과 결단, 독립을 통해 여성 억압적 지배 문화와 담론을 해체하고 있다²⁾.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좌절시키는 일체의 억압성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인데 정연희의 여성인식이 가장 표나게 드러나는 자전적 장편소설인 『석녀』, 『고죄』,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등에서는 남성중심적 폭력성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방탕과 외도를 일삼으면서도 부인을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남성의 부당성을 고발하며 불온한 여성으로 지탄받는 여성의 불륜담론을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쓰고 있다³⁾.

특히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비극적 현실의 원인을 남편(남성)과 부인(여성) 사이의 ‘관계’에 있음을 적시하고, 이를 ‘생명’의 문제와 연관시킨다. 남편의 자기중심적 사유가 여성/육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그럼으로써 교감과 소통이 상실된 관계를 생명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중심주의에 구조화된 남성/정신, 여성/육체의 이분법적, 위계적 사유의 억압을 모든 비극의 결정적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명이 사장된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아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관계와 생명을 동일 범주로 사유하는 것으로 정연희 소설에서

-
- 2)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5-335쪽.
- 3) 송인화, 『196, 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정연희 자전소설에 나타난 불륜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30권, 2013, 385-415쪽.

관계는 곧 궁극적 가치인 생명과 동일시된다. 생명과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생태주의적 상상력의 단초가 발견되거나, 주체중심적 사유의 폭력성을 거부하고 소통과 교감의 관계를 염원하는 정연희 소설의 상상력은 시작부터 생태주의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억압받는 타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70년대 발표된 정연희 단편소설은 사회적 약자나 약소국, 개인 등에 대한 사회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⁵⁾. 『난지도』는 이러한 타자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자연을 대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 자연과 여성에 가한 자본 지배의 억압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전 작품들과 다른 점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작품의 구도와 인물 설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타락한 남성 주인공과 그의 거둬남, 그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교화와 새로운 삶,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 타락한 여성의 희생이 그것으로 어머니의 기도와 참회적 노동을 통해 거둬남 남성 주인공이 여성 인물을 지도하고 새 삶을 기획한다는 계몽적 구도를 작품의 밑그림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의 의도와 구도는 실제로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연희 소설의 생태주의 상상력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생태주의 연구가 주로 시에 집중되면서 소설의 경우 90년대 이후 작가인 은희경, 천운영, 신경숙, 한강 등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으로 분석한 몇 편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여성문학의 생태적 상상력을 90년대 이후 소설이나 혹은 시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남성작가의 경우 이효석, 이청준, 황순원, 김동리를 포함하여 70년대 많은 작품들이 적극 주목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80년대 대표적인 생태 소설로 주목을 받았던 『난지도』조차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은 연구의 편향성을 보여준다.
- 5) 70년대 초반 발표된 정연희 단편소설은 이러한 사회비판적 경향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유신체제로 진입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냉전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의 모순을 고발하는 것으로 냉전 논리를 거대 강국의 자국중심주의적 이해에 기반한 약소국 착취로 비판하는가 하면(『난장이 나라의 조종사』), 민족이나 국가이데올로기 등 거대담론의 폭력성을 이념에 의해 파괴되는 개인적 삶의 비극을 통해 제시하기도 한다(『소만도 못한 자식』). 나아가 반공법과 연좌제를 직접 문제 삼기도 하는데 월북 가족을 빌미로 국가기관이 가하는 비열하고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파괴화된 개인과 가족을 통해 국가의 폭력성을 거둬 비판하고 있다(『中陰神』).

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남성 인물의 지도는 추상적 구호에 그칠 뿐이며 그의 희망적 메시지도 실제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구체적인 환경과 경험 속에서 발현되는 여성의 목소리와 연대, 그리고 그들의 돌봄의 행동은 물화된 관계를 극복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나타난다. 작품에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욕설과 싸움은 물론 시체, 죽음, 질병, 방화, 정신착란, 에니멀섹스 등의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은 합리적 체계를 넘어서는 타자의 목소리로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난지도』에 나타난 이러한 타자, 특히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여성 인식을 해명하고자 한다. 여성의 서사를 적극 복원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태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여성 윤리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 혹은 재현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이 생태학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자본주의적 대상 인식의 부정성을 분석하고, 타자의 목소리로 복원되는 욕설의 의미를 해명하며, 마지막으로 공존을 위한 돌봄의 윤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문명/남성의 지배, 인식의 폭력

80년대는 6, 70년대와 마찬가지로 ‘고도성장’ 신화가 주술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이다. 경제 성장과 개발은 되물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목표였고 경제제일주의적 기치 아래 낙관적 전망이 주도했다. 설비 투자와 제조업 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급증하였고 그만큼 개발과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로 진입하게 된다⁶⁾. 그러나 개인의 삶은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기제가 80년에

6) 80년대 제조업과 설비 투자는 1984년 각각 17.3%, 58.4%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80년대 전체에 걸쳐 대부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임휘철,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 『한국사』, 한길사, 2010.

도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대에 미치지 못하였다⁷⁾. 또 정부와 결탁한 독점 자본의 형성과 투기적 방법에 의존한 자본 증식은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⁸⁾ 국민 전체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의 광풍에 휘몰리게 된다. 자본의 맹위가 삶을 지배하는 결정적 원리가 되었던 것으로, 사람은 물론 모든 대상은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부정성이 자연은 물론 인간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난지도』는 이윤의 목적성이 지배하는 이러한 생태위기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다.

작품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문명과 그것이 배태한 부정성을 쓰레기라는 상징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성은 물론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상실한 맹목적 개발을 질타하는 것이다.

구름이 강으로 내려와 물결을 타고 노닌다.

물잠자리가 구름을 타고 흘러간다.

난초는 태를 뽑으며 꽃을 피웠고 창포꽃도 어우러져 물거울을 굽어본다.

사람들은 머물러 땀을 dri고 발가벗은 아이들은 물장구를 쳤다.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강과 갈밭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바빠! 바빠!」 하며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중략)...

7) 저임금 고노동에 의존한 수출집약형,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인 고동성장으로 요약된다고 하면서 75~85년 사이 1인당 GDP는 3배 상승하였으나 전체 소득의 27.6%가 소득 상위 10분위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हतोरि 타미오, 『198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에 있어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나』,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6, 11-42쪽.

8) 80년대는 기업의 자본 증식이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등 각종 투기적 자본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국민 경제 전체가 투기적 광풍 속에 들어갔다. 50대 재벌의 경우 기업투자비 가운데 부동산 투자비가 50퍼센트를 웃돌 만큼 토지투기가 극성이었는데 투기적 증식이 재벌들의 주된 자본 축적의 통로였다. 임휘철, 앞의 책.

모두가 계속 팽개쳐 버리면서 바쁘게 달렸다. 더러는 달리다가 죽어가는 데, 남은 자들은 죽음을 딛고 더 정신없이 달렸다.

무엇을 향하여 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전진(前進)인가.

목적 있는 전진인가.

...(중략)...

영문을 모르고 덩달아 뛰던 자들 중에 처음에는 그런 것에 관하여 묻던 자도 있었다.

의문(疑問)은 살아 있었고 질문(質問)이 있는 자리에는 관계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차츰 그 길에는 의문도 질문도 스러지기 시작했다.

맹목이었다.

맹목(盲目)과 가속(加速)은 서로를 껴안고 치정(癡情)으로 옹허 갔다.⁹⁾

난의 청초함과 깨끗함에서 연유된 蘭芝島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모된 현실을 비감하게 제시한다. 그것을 ‘질문’을 상실한 ‘맹목’, 그리고 ‘가속’으로 제시함으로써 목적이 되어 버린 개발 논리를 비판한다. 누구를 위해 왜라는 물음을 상실한, 자율적 자본 지배를 예리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인간이 주인으로 군림하면서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지배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파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인간중심성이 자연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자신에게도 행복을 빼앗아갔음을 비감하게 말하고 있다¹⁰⁾.

9) 정연희, 『난지도』, 정음사, 1984, 5-6쪽.

10) 생태주의는 인간중심주의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창세기에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인간중심적 사유의 철학적 명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에 대한 성경 해석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그것을 폭력적 지배가 아닌 ‘청지기적 사명’이나 ‘돌봄과 사랑의 윤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인간중심성이 생태파괴의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인다. 인간중심성에서 배태된 이분법적, 위계적, 기계적 사유가 폭력

개발의 맹목성에 대한 비판은 강제 철거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작품에는 두 번의 강제 철거가 제시된다. 하나는 난지도에 날아든 강제철거통지서로, 다른 하나는 부천시 고광동 주민들의 강제 철거 현장으로 나타난다. 먼저 쓰레기를 주우며 겨우 생존해가는 난지도 거주민들에게 대책 없이 날아든 강제철거장은 삶 자체를 흔드는 위협이 된다. 최신의 현대식 기계로 대체하여 쓰레기를 분리하고 수거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주의적 효율성이 생존권을 압도하는 생태 부정의 현장을 비감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300여 세대 8,000명’의 세대와 인명수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감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해체와 파괴를 문제적으로 부각시킨다. 이윤의 창출을 위해 효율적 자원 관리가 강요되고 자연은 물론 인간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가 그것에 지배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체제의 맹목성, 곧 돈이 환경과 자연을 지배하는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천의 고광동 철거는 난지도보다 훨씬 더 비극적 상황으로 제시된다. 돼지, 닭 등 가축을 기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포클레인과 집행관들에게 쫓겨나게 된다. 작품은 이를 소, 돼지, 닭 등이 뛰쳐나와 마을을 헤매고 그 속에서 인자 아버지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돼지처럼 기어 다니며 울부짖는 상황으로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정신병이라는 병리성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세계의 부정성을 고발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인자 아버지의 ‘돼지! 돼지!’의 울부짖음은 인간보다 우위에 놓인 자본의 폭력성을 공격한다.

적 지배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난지도』는 인간중심성을 생태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 시각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것을 신에게 부여받은 권리라기보다 신에게 도전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인간중심적 지배가 신에게 도전하는 죄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 한들출판사, 2005, 5-209쪽/김옥동, 『성서와 생태주의』,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 사람, 2003, 227-283쪽 참고.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환경 훼손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나타난 폭력성이다. 대상을 사유하는 관계 방식에 침투한 이윤의 논리가 인간관계를 지배하게 된 것으로 돈에 의해 관리되고 수단으로 전락한 관계의 부정성이 질타된다. 작품은 당시 일어났던 실제 사건과 인물을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공무원, 사채업자, 교육자, 사기꾼은 물론 심지어 목사까지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세태를 제시하고 있다¹¹⁾. 개발 정보를 넘겨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개발 호재를 미끼로 천 억대 금융사기를 일으킨 개발업자, 권력자를 배후에 두고 금융사기를 일으킨 사채업자,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 상대방 교회를 비방하는 목사, 거액의 외화를 몰래 반출하려다 발각된 대형교회 목사,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쓰레기를 줍기 위한 자리다툼을 벌이고 자릿세와 뇌물을 건네는 난지도 주민 등이 그들로 사회적 지위나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돈에 지배된 세계의 타락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윤 창출의 논리는 난지도 주민에서부터 윤리적 청렴성이 가장 높게 요구되는 목사까지 세계 전체에 침투되어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모든 관계가 철저히 경제적 이익 곧 이윤의 목적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직업의 윤리성이나 종교적 신념은 물론 기본적인 감정적 교감조차 사라졌음을 질타하고 있다. 사람의 가치와 고유성이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만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돈에 의해 관리되고 전유되는 자본주의적 인식과 관계의 부정성을 비판한다.

결국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관계는 ‘거래’로 바뀌고 모든 가치의 절대적 원천은 ‘돈’이 되는데 이러한 자본의 폭력성은 인신

11) 작품은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의 외화밀반출 사건, 장여자 사기 사건, 명성그룹 김철호 사기 사건 등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굵직한 부정부패사건들을 보도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1984년 6월 박조준 목사와 부인이 외화 20만 9천여 달러를 몰래 숨겨 나가려다 걸려 구속되었고 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는데 『난지도』는 박목사의 외화밀반출 사건을 단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예각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으로 주목하고 있다.

매매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작품은 70대 노인의 애니멀섹스를 통해 돈이 지배하는 세계의 병리성을 질타한다. 틀니를 덜그럭거리며 제대로 활동할 기력도 없는 노인이 가난한 집 소녀들을 매수하여 애니멀섹스를 즐기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소녀들을 거간하며 이윤을 챙기는 거간꾼의 교활성을 제시함으로써, 거래되는 인간과 수단으로 전락한 여성의 몸을 비판한다. 소녀들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의 달린 절실한 돈이 노인에게는 ‘운 좋게 끌어 들어온’, ‘새끼를 쳐서 들어오는’, ‘쓰면 쓸수록 붙어나는’, ‘다 쓰고도 죽을 수 없을 만큼’ 있는 돈이라고 제시됨으로써 80년대 투기적 자본 축적과정과, 왜곡된 소득불평등 문제까지 비판적으로 나타난다. 투기적 방법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에 대한 욕망은 병적으로 비대화되고, 돈의 목적을 위해 인간이 수단화되는 과정을 고발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교감이나 공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작품은 이러한 정서감 교감과 소통이 사라진, 관계성 부재의 현실을 생태 부정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지도』는 이러한 생태 부정의 공간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항하는 타자의 목소리를 표현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통해 억압적 불평등을 복원하려고 한다. 추상화된 규범체계에서 벗어난 비합리적 언어를 통해 합리적 체계로 무장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월경(越境)의 목소리, ‘욕’의 배설(排泄)

‘욕’은 제도권 밖의 언어로 합리성과 논리성을 지키지 않는 위반의 언어로 이해된다.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 안에서 대상을 표현하지 않는, 추상적 규범 외연에 존재하는 언어이다. 그것은 또 표준어와 존댓말로 구성된 교양인의 언어가 아닌, 하층민들이 발설하는 저급한 언어로 치부된다. 대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은(못하는) 그래서 과도한 공격

성과 분노를 표현하는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문학 작품에서 욕은 인물의 현실성과 사건의 생동감을 부여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난지도』에서는 욕을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류 언어로 호출하고 있다. 난지도 주민들의 발화를 통해 욕이 작품 전체에 넘쳐흐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욕은 일차적으로 일반적 용례처럼 하층민의 과도한 공격성, 교양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된다. 난지도에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삶의 역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욕은 그러한 하층민의 언어로서의 부정적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작품에 현저히 많이 나타나는 욕은 그보다 더 표준 문법 체계로 표상되는 지배 문화와 제도를 공격한다. 욕의 가학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도덕적 타락을 공격하는 한편, 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발설을 통해 육체의 속박을 풀어내는 것이다.

「교회? 염병을 하라지! 십자가를 꾸부려서 돈 갈퀴 만드는 데가 교회가? 사필귀정이로구먼 그래, 방귀가 좃으면 똥이 된다구 이 몇 년 새에 귀가 따가더라니…… 흥, 저 짓을 누가 말려?」¹²⁾

「야 야 말두 말어라. 간댕이가 부어서 하늘을 쓰구 돌이질을 한 놈이지. 글쎄 그 새끼는 개발 계획인가 쇠발 계획인가를 미리 알아 놓고 제주도에서 땅을 기껏 사들인 뒤에 대학 교수나 전문가다 잔뜩 불려서 공청회가 뭔가를 한 놈이라는군, 그 능청이라니 기가 차지」¹³⁾

「주릿대 팔떡을 앵길 놈들…… 실컷 해 처먹구 감출 것 다 감춰 놓은 뒤에 다 가져라 하는 식이지, 얼마가 지나면 그런 놈들이 나 언제 그랬느냐 싶게 대로를 확보하구 여전히 돈 뺏쩍거리며 다니는 게 세상 아냐?」¹⁴⁾

12) 정연희, 『난지도』, 153쪽.

13) 위의 책, 178쪽.

대학 교수와 공무원이 결탁된 개발 비리 사건, 목사의 외화 밀반출 사건, 기부금 등으로 비리사건을 무마하는 자본가들의 세태가 난지도의 대표 욕쟁이인 ‘뚝배기’의 욕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염병을 하라지’, 간탱이가 부어서, 주룻대 팔떡을 앵길 놈’ 등의 비속어를 통해 원색적으로 비리 사실들을 비판한다. 욕을 통해 분노와 울분까지 전달되면서 객관적 묘사나 간접적 재현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지배구조의 비윤리적 생태가 강도 높게 고발되고 있다.

나아가 『난지도』에서 욕은 남성중심사회의 권위를 조롱, 공격하는 유효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층민 소녀들의 욕을 통해 남성들의 허위성과 속물성이 비판되는데 맹목적 물질주의와 결합된 남성중심주의가 극적으로 노출된다. 돈으로 권위를 사려는 남성들의 허세와, 점잖은 척 위장한 겉모습 이면에 놓인 비겁한 욕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거라면 내가 먼저 보고를 하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 뭐가 새로울 게 있겠니? 다 그게 그거지, 아무리 성인 도덕 군자인 체하던 사내도 말이다, 면도한 답시고 벌렁 내어 맡기고 누워 있는 가운데를 슬몓 건드리면 ‘이게 뭐야?’ 하듯이 저 혼자 번듯하게 일어나는 거야. 별수 있는지 아니? 사실은 면도를 한다고 벌렁 누워서 상판을 맘 놓고 내맡길 때, 내 이 열 손가락 끝에서는 누과 귀와 코와 입이 다 열리는 거지. …(중략)… 하여튼 비누거품을 잔뜩 발라 놓은 얼굴을 열 손가락이 슬슬 문지르고 지압하고 쓰다듬어 가면서 면도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발소 눕는 의자 위에 몸을 내맡긴 사내는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가 되는 거지 뭐. 얼굴, 목, 귀를 적당히 주물러 놓으면 반쯤은 흐물흐물 익었다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리를 주무르는 순간에서는 거의 다 익었다고 보아도 괜찮을 지경이고 …(중략)… 한겹 간막이 안에서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도둑질하는 사내들의 그 표정을 하나하나 그리라면 그게 아마 대상(大賞)값일 게다. 이제는 돈 벌이하고 상관

없이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어서라도 가만 놓아둘 수가 없다 이 말이다¹⁵⁾.

이발소 면도사인 정은의 입을 통해 남성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억지로 성적 욕망을 감추고 근엄한 척하는 남성을 ‘성인 도덕 군자인 체하는 사내’로 일갈하고 있다. 또 ‘흐물흐물 익은’,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도둑질하는 사내’로 그들을 표현함으로써 남성/정신의 위상을 끌어내린다. 여성의 전유물이던 ‘불결한’ 섹슈얼리티 담론 속에서 남성의 육체를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부여됐던 불온함의 의미는 남성에게 전이되고 정신 영역의 우월한 주체로 남성에게 부여됐던 근엄함과 엄숙함의 의미는 사라진다. 남성/육체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통해 조롱과 희화의 대상으로 격하되는 것으로 욕설을 통해 성적 희열과 성역 파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⁶⁾ 남성/정신/주체의 우월성이 깨지고 여성/육체/타자와 동등한 혹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비하되는 것으로 결국 욕설을 통해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 이분법적, 위계적 인식의 경계를 뛰어넘는(越境)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을 욕을 통해 여성 육체에게 부여됐던 불결함은 물론 희생적 의미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육체와 성은 소녀들의 발가벗은 몸을 통해, 또 육체를 소재로 한 다변의 욕을 통해 인간을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나타난다. 골프장 캐디인 귀애와 인자, 이발소 면도사인 정은, 스키장 레스토랑 종업원 은숙이 숲 속 개울가에 놀러가 발가벗고 웃으며, 뒹굴며 자신들에게 치근덕거렸던 혹은 관계 했던 남성

15) 위의 책, 211-12쪽.

16) 윤재학은 욕설의 기능을 단순히 언어적 겁박, 카타르시스 효과, 유대감 고취로 구분하는 전통적 구분법을 피상적인 차원의 기능 분류라고 비판하고 욕설의 종류에 따라 세부 감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기능을 주장한다. 그는 욕을 외적 기능과 내적 기능 구분하여 외적인 공격 기능과 함께 욕설의 종류에 따라 가학적 만족감, 성적 희열, 성역 파괴의 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윤재학, 『언어, 문화 : 욕설의 형성 과정에 관한 소고』, 『비교문학연구』 35권, 2014, 237-268쪽.

들의 행태를 ‘보고하는데’, 거리낌 없이 호탕하게 이어지는 욕의 배설(排泄)을 통해-근엄한 척 누워있으면서 욕구를 자제하지 못해 찢찢매는 모습, 하루에 7번이나 관계를 요구했다는 중년 신사-육체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재현된다. 이들의 깔깔대는 웃음, 호탕한 욕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벌이는 알몸의 몸싸움을 통해 여성의 육체는 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팔리는 몸, 사회적 타락에 의해 불결하게 짓밟히는 ‘가련한’ 몸의 이미지를 벗게 된다. 억압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생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유린당하는 타락한 사회의 희생자로, 돈에 의해 팔리는 짓밟힌 순수성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이다¹⁷⁾. 우리는 물론 젠더나 민족이데올로기에 억압될 수 없음을 소녀들의 발랄한 육체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정은의 말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율성을 확보한다. 정은은 남자들이 자기 손에서 흐물거리는 것이 보고 싶어 ‘돈과 상관없이’ 그들을 건드린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돈에 팔린 성적 대상물이 아닌, 자발적 유흥을 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성/육체가 유흥과 유희의 욕설을 통해 가진자의 욕망에 짓밟히는 희생적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불온한 육체도 희생적 육체도 아닌, 성적 욕망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 정당하게 복원된다. 돈에 의해 수단화되는 억압적, 희생적 육체의 이미지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회복하고 남성-가진자들과의 동등한 공존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편 『난지도』에서 육체의 욕설은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병리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합리적 체계를 공격하기도 한다. 욕설의 가학성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 것으로 자해적 육체 가학을 통해 세계의 부정성을

17) 정현기는 『난지도』를 『탁류』와 유사한 서사로 분석하면서 심정기는 남승재와 은숙은 초봉과 동일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 심정기는 이상적 주인공, 그의 비호를 받다 희생되는 여성상으로 분석하는데 이처럼 은숙과 소녀들의 성과 육체를 자본주의 사회의 희생물로 해명하는 것은 작품 자체의 실제적 이야기 전개보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서사문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정현기, 『작품론-濁流, 1980년대의 한 비관적 전망』, 『난지도』, 정음사, 1985, 277-283쪽.

비판한다.

<비겁한 짓! 비겁한 짓!>

은숙은 자기 자신을 짓뭇개고 싶었다. 그들이 절반도 먹지 않고 더럽게 남겨 놓은 음식 찌꺼기 속에 자기 자신을 처박아 놓고 짓이겨 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뿐이었다. 육체는 어느 쪽의 결행을 위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으리으리하고 번들번들한 물건들로 인해서 느글느글하던 현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구역질로 바뀌어 버렸다¹⁸⁾.

스키장에 놀러온 고등학생들이 비싼 음식을 맛이 없다며 남기고 간 것을 보며 은숙이 분노하는 장면이다. 부의 불평등과, 자본가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은숙은 ‘음식 찌꺼기 속에 자신을 처박아 짓이겨 대고 싶었다’고 울분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육체를 가해하는 가학성을 보여준다. 외부로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육체를 가격하는 자해적 가학성, 곧 피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를 훼손하는 병리성을 통해 추상적 규범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난지도 주민들의 욕설에 자주 묻어 나오는 쓰레기에 파묻어 썩어 죽고 싶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부로 공격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자기에게 화살을 돌려 몸을 자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적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피학성은 정연희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공격의 방식인데¹⁹⁾ 『난지도』

18) 정연희, 앞의 책, 209쪽.

19) 자학적 병리성은 자전소설인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피흘림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이 유산과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피가 튀고 흐르는 상황이 제시된다. 여성의 사랑과 성을 불륜 담론 속에서 비난하는 가부장적 사회에 강한 항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흘림은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카타르시스적인 제의 과정인 동시에 난자하게 흐르는 붉은 피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억압하는 남성중심사회를 고발한다. 이에 대해서는 송인화, 『정연희 소설의 죄의식 연구』,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17권 2호, 2012, 105-126쪽 참고.

에는 자학적 병리성 외에 다양한 병리적 상황들이 등장한다. 죽음, 시체, 방화, 싸움, 애니멀섹스 등의 그로테스크한 상황들이 그것들로, 병원 치료비가 없어 오줌보가 터져 죽는 순미아버지, 병원에 빨리 도착하지 못해 죽은 임산부, 쓰레기를 뒤지다 엉겁결에 난지도에 실려와 화상 당한 검댕이 아이, 강제 철거로 기르던 돼지를 잃고 정신 착란으로 헤매는 인자 아버지, 그리고 70대 노인의 애니멀섹스는 모두 성찰성을 상실한 맹목적 합리성과 그로 인한 윤리적 타락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윤의 목적성에 지배된 자본주의 사회의 추상적 체계를 비합리적, 병리적 질병과 수사학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비합리, 정상/비정상, 건강/질병, 남성/여성의 경계가 사라지고 억압된 타자들의 위상이 복원된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제시된 은숙의 시체는 병리성을 통한 비판을 최종적으로 완결한다. 난지도 사람들이 연속 허망하게 죽어가는 정황을 목격한 은숙은 스스로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 육체관계에 대한 대가로 난지도를 위한 기금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하고 자살한다. 은숙의 자살은 노인의 살해가 가져올 양심의 가책을 짊어지기 싫다는 명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 훼손적 소멸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서에 써 있는대로 ‘열심히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빨리 썩어 없어지려’는 것으로 썩어질 육체 곧 시체의 형상을 통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여성 육체에 가하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표현한다. 노인이 은숙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며 은숙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 ‘생각하는 얼굴을 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은숙에게 더 큰 돈을 줄 테니 가꾸고 예뻐지기만 하라는, 곧 ‘인형 같은 얼굴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은숙의 시체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 파랗게 굳은 시체의 형상은 교환되는 여성 육체에 대한 거부이자, ‘인형’으로 상징되는, 여성-육체에 대한 자본주의적 문화/정치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물질주의를 생태 위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난지도』는 억압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남성과 동일시하며 여성의 육설과 육체,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형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제도

와 문화를 공격하는 것이다.

4. ‘돌봄’의 윤리, 공생적 관계를 향하여

욕설과 비합리성을 통해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는 월경(越境)을 시도하는 동시에 『난지도』는 자본주의적 폭력성을 넘어서는 대안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들이 보여주는 공감과 돌봄, 그리고 관계에 기초한 연대를 통해 대상화된 관계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으로 길리건이 말한 돌봄의 윤리가 여기서 발견된다. 길리건은 정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남성적 윤리와 다른 여성의 윤리를 돌봄에서 찾고 그것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원리와 규칙보다 책임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둘째, 추상적인 대상이나 추론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환경과 경험에 의존하고, 셋째, 원칙이나 체계보다 행위(activity)로 표현된다는 것이 그것이다²⁰⁾. 작품에 서술되는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녀들의 모습은 당위적 원칙보다 관계 속에서 행위를 결정하고, 추상적 인식이 아닌 경험과 환경에 의존하며, 이념적 선포가 아닌 행위로 실천함으로써 돌봄의 윤리를 실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지도』는 심정기를 주축으로 한 남성 중심의 서사를 밀 그림으로 가지고 있다. 오랜 방탕과 수감 생활 후 심기일전한 심정기가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난지도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정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그의 계획에 보조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작품의 구도는 지켜지지 않는다. 심정기의 존재성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개심과정도 불투명하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그의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전혀 설득력을

20) 손승희, 『“돌봄”과 길리건의 여성윤리』, 『기독교사상』 462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09-125쪽.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정기의 계획은 난지도의 비참한 현실과 동떨어진 ‘별이야기’로 아무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는 노인과의 충격적인 관계 이후 고통스러워하는 은숙에게 쓰레기 산에도 별은 떠 있다며 ‘몇 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보면 지구는 신비고 미래고 꿈’이니 희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이는 지옥 같은 은숙의 내면을 헤아리지 않는 추상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정기의 원칙적 주장에 대해 은숙은 물론 난지도 주민 누구도 공감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반면 향이엄마, 나래궁 선생님, 특히 은숙이 등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실천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녀들의 주장과 행동은 현실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추상적 계획을 압도하는 실질적 힘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난지도』는 심정기의 이야기라기보다 여성들 특히 은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발랄한 모범생인 소녀가 일식집 지배인의 꼬임에 넘어가 70대 노인의 성적 상대가 된 후 사회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고 난지도로 돌아오지만 그곳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스스로 다시 노인에게 찾아가 난지도를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려다 자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숙의 이야기는 성장과 시련, 모색과 저항을 포함한 하층민 여성의 성숙을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보여준다. 심정기의 개심이 막연하게 어머니의 인내와 기도로 제시되고, 그의 행위가 분노와 울분 외에 뚜렷한 실천이나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 은숙의 이야기는 난지도를 살아가는 여성의 좌절과 성숙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숙이 보여주는 가장 큰 힘은 ‘공감(Empathy)’의 능력이다. 그녀는 난지도 사람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은숙은 돈이 없어 간단한 처치도 받지 못하고 어이없이 죽은 순미 아버지를 낚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애통해 한다. 또 강제철거로 인한 난지도 주민들의 고통을 막연한 예상이 아닌 몸에서 엄습하는 ‘실감’으로 인식한다(21).

두 사람의 이러한 차이는 외상 밥값을 사이에 둔 갈등에서 가장 선명

하게 드러난다. 난지도에서 밥집을 운영하며 은숙은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난지도 주민들의 배고픔에 공감하며 외상을 주지만 정기는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외상 불가를 주장한다.

「오빠, 오빠도 배고픈 게 뭔지 알잖아? 수금이 안 됐으니 수금되는 대로 주겠다고 밥 한 그릇 먹자는데 그걸 어떻게 안 주구 견녀?」

「은숙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버릇을 들여 놓으면 저 사람들이 자꾸 나빠진단 말야. 한번 외상 먹고 하루이틀 못 갚고, 그러다가 돈이 생겨두 안 갚게 되고, 그런 게 되풀이 되면 남의 것 넘겨다 보는 배짱까지 생기게 마련이야. 그래서 그들이 잘못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외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지. 하여튼 한 번 외상한 사람한테 두 번은 주지 말어. 그리고 엄격하게 하구, 돈은 꼭꼭 받아 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야, 내 말 잘 들어」

「오빠, 600원이나 150원이 없어서 배고픈 걸 견디라고 할 수는 없잖아」²¹⁾

정기가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은숙은 배고픔이라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경험과 감응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은숙이 경험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힘듦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실제 행위를 통해 배려하는 것이라면, 정기는 지켜야 할 것으로서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기의 태도는 금기와 규범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추상적 윤리로서 관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성 윤리와 대비되는 남성적 윤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작품에서 설득력은 물론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21) 공감은 도덕감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타자 성찰성을 근간으로 하는 도덕감정은 타자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러한 도덕감정의 출발이 타자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김왕배, 『도덕감정』,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47-80쪽.

22) 정연희, 앞의 책, 255쪽.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 심정기의 주장은 작품이 비판하는 목적주의적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힘을 상실한다. 계획과 목표에 의존한 정기의 주장은 합리성에 의탁한 것으로 관리와 억압을 내재한 지배의 메카니즘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을 도우며 살면 힘이 날거야라며 ‘감사와 사랑, 그것만이 약이라고’ 강조하는 심정기에게 은숙이 ‘실감이 안 와’라는 말로 거리감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의 인식과 행위는 그가 은숙에게 들려주는 ‘별이야기’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희망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숙이 노인을 다시 찾아가는 것도 참혹한 현실에서 실제적 도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성 윤리로서의 돌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신의 가족과, 움막집마저도 강제 철거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 그리고 적은 돈도 없어 죽는 순미아 버지와 임신부 등을 목격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을 한 것이다. 은숙의 행동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강요된 희생이거나 남성이데올로기에 굴복한 수동적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요구도 반영한 ‘선택’으로서 그러한 점에서 길리건이 말한 성숙한 여성의 도덕발달에 기초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²³⁾. 즉, 자신의 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의 대가를 정당하게 노인에게 요구함으로써 난지도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은숙의 선택을 ‘생명의 불꽃’으로 명명함으로써 그것의 생태주의적 가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마지막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불꽃과 같은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점화해 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비밀한 힘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 일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또 어떤

23)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옮김, 동녘, 1997, 275쪽.

결과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통째로 움켜쥐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기도 했다²⁴⁾.

노인에게 기금을 요구하겠다는 은숙의 결심을 ‘생명의 비밀한 힘’, 나아가 ‘생명을 통째로 움켜쥐고 있는 절대적인 힘’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의 길은 단지 난지도 주민들의 현실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생태주의적 열망이 집약된 가치로 이윤의 목적을 위해 훼손된 자연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거래로만 유지되는 대상화된 관계를 극복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곧 자본주의의 억압적 상황을 극복할 궁극적 대안인 것으로 작품은 젠더 윤리로서의 돌봄을 통해 생태위기를 넘어서고자 한다.

은숙과 함께 『난지도』에 돌봄의 윤리성을 실천하는 또 다른 여성들로 향이엄마와 나래궁 임신생님이 있다. 향이엄마는 수감 중인 남편을 기다리며 난지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녀는 위로를 통해 비참한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향이엄마가 인내와 헌신의 덕목을 체현한 수동적 여성은 아니다. 그녀는 임신 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자기 때문에 남편이 도둑질을 한 것을 알고 남편을 설득하여 자수하게 했으며, 갓난아이를 기르면서도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과 아이를 위한 전적인 희생이나 이타적 헌신이 아닌, 자기 이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공존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심정기를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당위적 원칙에 집착하는 심정기가 작은 충격에도 좌절하는 것을 일으켜 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제공한다. 추상적 윤리의 약점을 메워주는 것으로, 향이엄마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며 위

24) 위의 책, 270쪽.

로와 용기를 준다. 그녀는 어려운 현실에서 심정기를 불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그의 힘든 내력을 들어줌으로써 정기가 난지도에서 살아갈 결정적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다. 밥집을 하는 은숙에게도 자신의 그릇들을 나누어주며 바쁜 일손을 도와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를 공급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보여주는 돌봄은 자기중심적 이해로 타인을 억압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의 이해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 않는, 곧 관계 중심의 공존의 윤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배와 억압, 착취의 억압적 관계를 극복할 정당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난지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선생 역시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외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면서도 난지도로 들어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임선생의 행위는 난지도 주민들의 현실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철저한 희생이나 헌신을 통한 이타성이라기보다 자기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함께 살아갈 최대치를 배려한 선택 즉, 관계성에 기초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숙, 향이엄마, 나래궁 임선생의 공감과 실천을 통해 『난지도』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가 함께 하는 공존의 희망을 투사한다.

5. 맺으며

정연희 소설은 지배의 억압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내장하고 있다. 부당한 억압에 대한 거부는 소설이 보여주는 일반적 성향이지만 정연희 소설의 저항성은 처녀작에서부터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정적 격렬함을 담아 치열하게, 또 무엇보다 억압받는 타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넘는 특징적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억압받는 타자의 시선

에서 세계를 응시하고, 부당한 억압에 대해 강렬한 항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정연희 소설의 중심은 타자 윤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남성, 인간으로 시기에 따라 대상은 바뀌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중심적 지배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만큼 지배하고 지배 받는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날카로운데 신과 인간, 남성과 여성, 인간, 자연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억압에 대해 치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억압하고 전유하는 관계의 왜곡성을 비극적 삶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난지도』는 이러한 정연희 소설의 인식과 저항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자본주의 문명이 만들어낸 인간중심적 폭력성을 난지도라는 쓰레기매립장을 배경으로 고발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황폐화되는 자연과, 이윤 창출의 목적성에 지배된 대상화된 인간관계를 문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타자로서의 자연의 억압을 문제화하는 것인데 본고는 『난지도』에 투시된 이러한 생태학적 상상력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명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조명되거나, 80년대 한국 사회의 부패를 남성주인공의 지도 아래 극복하려는 작품으로 해석되었던 이 작품을 억압 받는 여성의 목소리와 윤리를 적극 읽어내는 방식으로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난지도』는 80년대 경제제일주의로 요약되는 한국자본주의의 맹목적 이윤추구를 질타한다. 공무원, 교수, 금융인은 물론 청렴성이 가장 높게 기대되는 목사까지 스며든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인식의 문제를 통해 비판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전락하면서 교감과 소통이 사라진 대상화된 인간관계를 고발하는 것이다. 특히 난지도 주민들에게까지 자리다툼과 청탁이 난무함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의 전면적 지배를 비감하게 보여준다. 또 강제철거로 인한 정감 공동체와 가족의 해체를 통해 기계적 합리성이 가하는 폭력을 구체적 상황 속에 노출시킨다. 자본의 폭력성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70대 노인의 애니멀섹스를 통해 가장 문제적으로 부각되는데 하층민 소녀들을 번갈아 바뀌가며 농락하는 자산가 노인의

추태를 통해 경제제일주의로 요약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물론 여성-육체에 가하는 자본의 억압성을 비판한다. 타락한 자본이 궁극적으로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가장 폭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윤의 목적성이 자연은 물론 여성 억압의 결정적 원인이 됨을 고발하고 있다.

『난지도』는 이윤에 지배된 인식과 사유, 그것이 만들어낸 대상화된 관계를 고발하면서 제도권 밖의 언어인 욕설을 호출한다. 인물의 발화를 통해 직접 공격성을 노출하는 것으로 욕설이 가지고 있는 가학성, 성적 희열, 성역 파괴가 합리적 체계의 억압성을 타격한다. 이윤의 목적성에 지배된 세계의 모순을 욕을 통해 공격하는 것으로 합리, 정신, 추상으로 표상되는 합리적 체계가 욕을 통해 조롱, 비판된다. 골프장 캐디, 이발소 면도사, 스키장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하는 하층민 여성들이 놀이 과정에서 쏟아내는 욕설을 통해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고 근엄함을 지어내는 남성중심적 허위성을 해학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또한 욕을 통해 소녀들의 육체는 불결함과 희생적 의미를 넘어선다. 발가벗고 웃는, 놀이를 통해 여성-육체는 남성들과 동등한, 자율적 육체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남성, 육체/정신, 합리/비합리의 이분법적 경계와 그것의 위계적 억압성을 뛰어 넘는다. 욕설을 통해 생태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이분법적, 위계적 인식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양자 사이의 대항적 공존을 모색한다.

작품은 욕설을 통해 대항적 공존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돌봄의 여성 윤리를 통해 추상적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관계를 모색한다. 구체적인 경험과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실천하는 것으로, 난지도 주민을 위해 노인을 찾아가 기부금을 요구하는 은숙, 수감된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를 기르면서 자신도 보육교사 준비를 하는 향이엄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지도에 들어와 방치된 아이들을 보살피는 나래궁 임선생 등은 모두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실천하는 것으로 작품은 이러

한 돌봄의 여성 윤리를 통해 물질주의에 의해 훼손된 생태 위기를 극복할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정의에 기초한 추상적 원리로 체계화된 남성 윤리와 대비되는 것으로, 작품은 이러한 돌봄의 젠더 윤리를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할 열망을 투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정연희, 『난지도』, 정음사, 1984.
정연희, 『목마른 나무들』, 여원, 1964.
정연희, 『석녀』, 文藝社, 1968.
정연희, 『고죄』, 中央出版公社, 1970.
정연희,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 大運堂, 1978.
정연희, 『간헐 自由』, 三益出版社, 1974.

2. 단행본 및 논문

-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 한들출판사, 2005, 5-209쪽.
김미영,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글쓰기와 다문화시대(多文化時代)의 윤리(倫理)」, 『동아시아문화연구』 53권, 한양대학교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247-276쪽.
김왕배, 『도덕감정』,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47-80쪽.
김옥동, 『에코페미니즘과 생태중심주의 세계관』, 『미국학논집』 제29집 1호, 1997, 47-70쪽.
김옥동, 「생태 비평과 비평 다원주의」,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225-275쪽.
김옥동, 「성서와 생태주의」,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227-283쪽.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

- 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5-335쪽.
- 이남호, 김원중, 우찬제, 『환경 문제와 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과 이론학회, 1999, 9-73쪽.
- 손승희, 『“돌봄”과 길리건의 여성윤리』, 『기독교사상』 462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09-125쪽.
- 송인화, 『1960년대 연애 서사와 여성 주체-정연희 <석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5권, 2008, 143-175쪽.
- 송인화, 『정연희 소설의 죄의식 연구』, 『문학과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17권 2호, 2012, 105-126쪽.
- 송인화, 『196, 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정연희 자전소설에 나타난 불륜 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30권, 2013, 385-415쪽.
- 송지현, 『문학비평으로서의 생태여성론(Ecofeminism)』,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1992, 97-115쪽.
- 윤재학, 『언어, 문화 : 육설의 형성 과정에 관한 소고』, 『비교문학연구』 35권, 2014, 237-268쪽.
- 정현기, 『작품론-濁流, 1980년대의 한 비관적 전망』, 『난지도』, 정음사, 1985, 277-283쪽.
- 조주영,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도덕윤리로서의 보살핌』, 『여/성이론』 21호, 2009, 72-84쪽.
-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정연희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5집, 1999, 112-135쪽.
-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옮김, 동녘, 1997, 275쪽.
- 태혜숙, 『몸, 바흐친, 페미니즘』, 『영어영문학』 48권 1호, 2002, 79-95쪽.
- 핫토리 타미오, 『198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에 있어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나』,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6, 11-42쪽.

Abstract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Gender Ethics in 『Nanjido』: Swearing and Ethics of Caring

Song, In-Hwa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the ecological imagination in 『Nanjido』 especially from gender point of view. It tries to explain ecological consciousness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m, would like to know how the voices of others, especially woman present or represent in the work who repressed by objectification thinking derived from capitalist materialism.

『Nanjido』 is accused of human-centered violence made from capitalist civilization with the dump background. It shows a objectification human relations dominated the purpose of profit as a big problem. Emphasizing the domination of capital through the moral depravity,

It dramatically highlights the oppression of women sex with a prostitute. That shows the work define s the cause of women's oppression as capitalist materialism.

『Nanjido』 find a way to cope with the violence, a counteractive coexistence in irrational abusive. Through the sadism, sexual gratification, destroying sanctuary, abusive attacks the rationality of the capitalist system. In this process, man's falsehood is attacked humorously. And sacrificial meaning given to the body of the women disappears through the abuse of underclass women. With her smiling, naked, playing, woman body is equal with men, and be

reproduced as an autonomous body. Therefore it surpasses dichotomy way of thinking such as woman/man, rational/irrational, body/mind, and hierarchical suppression structured in the dichotomy.

In addition, the work explores a new alternative relationships with ethic of women-caring. That practice caring and helpful to others in concrete experience and environment. Through the caring that is embodied in the women it projected the aspirations of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They help others not in altruistic sacrifice but in the extent that they can be based on the deep sympathy in relation to others.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men's ethics based on the norms and definitions organized into abstract principles. 『Nanjido』 presents a real relationship to overcome the violence of the capitalist mode of awareness that threaten ecosystems through gender ethics of caring.

Key words : Ecology, The purpose of the profits, Objectification thinking, Swearing,
Ethics of caring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